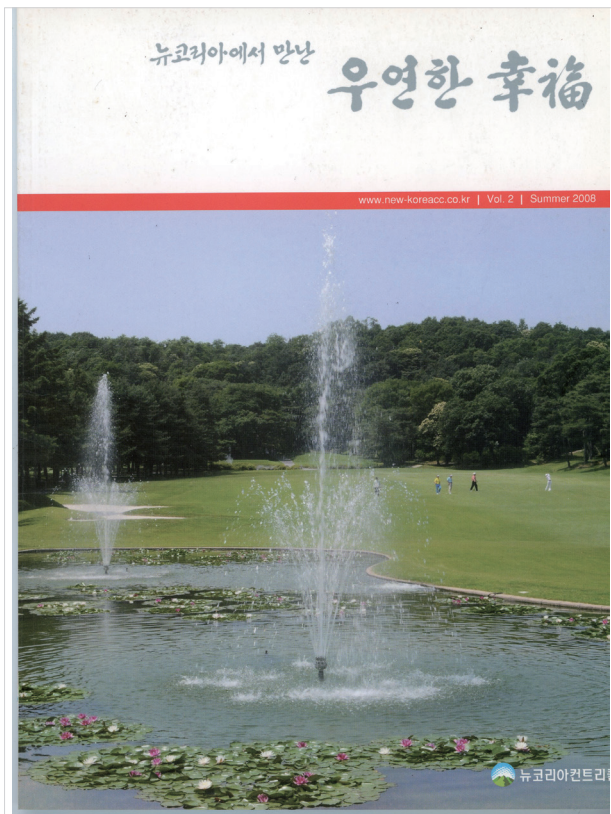


뉴코리아 C.C. 하우스 저널

‘진정한 골퍼인 김종필’

‘진정한 골퍼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서 듣는다’



문: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어떠신지요.

답:건강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골프 덕분인가 봐요.

문:예전부터 골프 예찬론자로 잘 알려져 계신데요, 필드에는 자주 나가십니까?

답:일주일에 두 번 정도 라운딩을 즐깁니다. 요즘 동반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들이나, 혹은 같이 라운딩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모두 대단히 잘치는 골퍼들이지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나보다 100야드

는 더 나갑니다. 그럴 때에는 속으로 “흥, 당신들도 내 나이가 되어 보슈, 그렇게 나가나”하고 웃는 겁니다.

문:총리께서는 어떤 계기로 골프를 하게 되셨는지요. 그 때 상황은 지금과 무척 달랐을텐데요.

답:어떤 계기로 골프를 시작하였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골프장의 내력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지요. 1961년 5월 군사혁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골프장은 서울 근교에 몇 개가 있었으나, 미군기지 내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 민간 코스로는 1954년 7월에 개설한 서울C.C.가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서울C.C.의 역사는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1년 효창원孝昌園에 9홀 코스로 개장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철도국 직영코스로서 조선호텔 투숙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설했는데 주로 조선총독부 고관 등 일본인들이 이용했고, 1924년에서야 한국 최초의 골퍼클럽인 경성C.C.가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 효창원에 출입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량리에 16홀 코스가 개설되었는데 그 위치는 청량리 근교 석관리 소재의 이왕실능림李王室陵林 10만평에 건설비 4만



1920년대 효창원 코스에서 플레이를 하는 골퍼와 캐디 모습

엔으로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29년 1월에 군자리(현 광진구 능동)코스를 착공했는데, 이는 이왕실의 능묘지 30만평을 영친왕英親王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인바, 영친왕은 부지 하사와 건설비 2만엔과 이후 3년간 매년 5천엔의 보조금도 하사함으로서, 1930년 6월 군자리코스 18홀이 완공되어 전장全長 6,045야드 코스를 개장했는데, 영친왕과 이방자李方子여사도 라운당을 해서 모두를 감격시켰다고 합니다.

1943년 태평양전쟁으로 폐장하여 농경지화 되었으나, 1949년 11월 골프장으로 복구하여 1950년 5월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다음 달에 6.25동란이 발발하여 폐쇄되었고, 휴전 후인 1953년 11월 사단법인 서울컨트리구락부로 재창립하여 1954년 7월 18홀로 정식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파란과 변천을 겪은 서울컨트리구락부는 1972년 8월 어린이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와 시설을 서울

11월 태능C.C., 68년 6월 안양C.C.등 이었습니다.

금년 말이면 전국 골프장은 300여 개소가 되며, 내장객은 연간 2,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 하니 격세지감이 없지 않아요.

이제 내가 어떤 계기로 골프를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지요. 5.16혁명 당시에는 서울컨트리구락부가 유일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군사혁명이라는 유형무형의 중압重壓 때문인지 골프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권해도 분위기가 무섭던지 얼마 안되는 골퍼들이지만 골프장에 나타나지를 았더군요. 당시 골프 세트를 구하려면 미8군 프로샵에서나 구할 수 있었는데, 8군 사령관 메로이 장군에게 골프 채 한 벌을 구할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고 했더니 맥그리거 한 벌을 주선해 주어서 이걸 들고 김정렬金貞烈 전 총리, 장지량張志良, 김신金信 두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서울C.C.에 나갔습니다.



2차대전 중 일본이 군량미 확보를 위해 골프장을 농경지로 갈아엎는 장면.

시에 기증하였으며, 1972년 11월 군자리 코스 시대를 마감하고 현 위치인 원당 코스로 이전하여 금일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1960년대에 개장한 골프장으로는 64년 9월 한양C.C., 66년 5월 제주C.C., 66년 6월 뉴코리아C.C., 66년

생전 처음 만져보는 드라이버를 쥐고 그립 잡는 요령만 김정렬 전 총리로부터 현장에서 배우고 라운당을 했습니다. 얼마를 쳤는지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가 플레이하는 것을 본 플레이어들이 겨우 필드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나는 골프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배운 일이라곤 없고 자세야 어떻게 치면 앞으로 나가는 재미로 즐겨 왔어요.

그런데 서울C.C.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군사혁명 두 달쯤 되던 날 국가재건최고회의

에서 서울C.C.를 불도저로 갈아 붙이고 거기에 쿡을 심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찾아가서 재심再審해 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 골프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는 것을 왜 없애니까. 앞으로 우

리나라도 세계 추세에 따라서 많은 골프장이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週中에는 열심히 경제건설하고 주말에는 자기 취미대로 운동을 즐겨야 할 터인바, 하나 있는 서울C.C.는 남겨놓아야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근대화 추진에 협력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즐기는 골프장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콩을 심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식량보충이 되겠습니까. 곧 후회할 것입니다. 번복해 주십시오”했더니 박 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하시고 그 후에 재심하고 번복해 주셔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군 고위 장성들이 골프를 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25 직전에 AT-6라는 고등 연습기가 들어왔고 그 후 F-80산더, F-86 세이버, 그리고 F-5A, B부터 G형까지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군 선배들이 미 본토에서 혹은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몇 개월씩 조종 훈련을 받고 돌아 왔는데 현지에서 여가 있을 때 골프를 즐기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그 분들은 최신 제트 전투기 조종도 일류였지만 골프도 모두 싱글이었으니 자랑스럽고도 우수한 분들임이 틀림없지요.

문:뉴코리아C.C.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답: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뉴코리아C.C.만 한 명문 코스는 그리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코리아C.C.는 1966년 11월에 개장했는데, 당시에는 건설 장비도 그리 흔치 않아서 재래식在來式 도구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아웃은 탁할 곳이 하나도 없는 명코스로 닦아 놓았어요. 9홀 티그라운드 옆에 당시 토양을 다지기 위해 사용했던 콘크리트 롤러가 놓여 있는데 그런 원시적原始的인 도구로 만들어진 코스들입니다. 세칭 명문 코스란 돈 많이 들여서, 세계적인 설계가에 의해서 어렵게 꾸며진 코스가 아닙니다. 평균 80대로 플레이하는 골퍼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명문 코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내 큰 재벌들이 세계10대 명코스를 설



계했다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설계비를 지불하고 턱없이 어렵게 꾸민 코스가 명문 코스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주변이나 제주도에 설계자를 자랑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에서 국내 일류 프로들이 1언더 혹은 2오버를 치고 우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10언더 이상의 성적을 내는 프로들이 1언더를 치고 우승했다면 좋은 골프장은 못되지요.

나는 뉴코리아C.C.가 개장한 1966년 11월27일 뉴코리아컨트리구락부 제1호 명예회원증을 당시의 대표이사 우제봉禹濟鳳씨로부터 받았으니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그 후 우리 부부가 동시에 정회원이 되었으나,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무원 골프 금지령에 따라 모두 매각했다가, 2004년 정계를 떠나면서 인연 깊은 뉴코리아C.C.에 회원으로 재입회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인연이 아니지요? 그런데 뉴코리아C.C.는 1966년에 단사 천段泗川, 이동찬李東燦, 김종호金鍾浩, 최주호崔主鎬, 우제봉禹濟鳳씨 등이 함께 설립을 했고, 초대 사장을 우제봉씨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제봉씨는 1972년 10월에 경산에 현 대구C.C.를 개설하여 거기로 이전했고 의욕이 왕성한 그는 1996년 8월 중국 대련에 골프장을 개설하여 해외 진출을 달성하였으나 그 후 세상을 하직하여 현재는 아들 우기정禹沂禎씨가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YS와 플레이 도중 먼 거리 샷을 성공시키고 환화하는 모습.

문:골프에 숨은 에피소드 같은 걸 소개해 주십시오

답:일본 장수長壽 수상이었고 지금도 국가 원로로서 적지 않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과는 매년 8월1일 가루이자와(일본의 유명한 피서지)에서 골프를 하는데, 금년이 25주년째 입니다. 나카소네씨는 금년 91세 인데도 정정하여 나와 같이 골프를 즐길 수 있으니 대단한 건강체健康體라 할 수 있겠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소득 300불이 되면 골프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300불이 넘어서야 골프채를 잡으셨어요. 최초에는 서울컨트리C.C.(이전하기 전)에서 시작하셨지만 뉴코리아C.C.가 개장하고서는 대부분 뉴코리아C.C.에서 즐기셨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필드에 나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어느 일요일에 청와대에 들렀더니 앞뜰에서 김성진金晟鎭박사(당시 공화당 정책위 의장)로부터 코치를 받고 계십니다. “각하, 김 박사는 골프 시작한 지 며칠 안되는 분인데 코치 받으시면 기본이 훼손될 겁니다.” 했더니, “아주 전문가 같이 가르쳐 주는데!” 하시더군요. 그래서 “들은 풍월風月이겠지요, 뭐” 했더니 박 대통령께서 웃시면서 “하기야 입으로 하는 골프도 있다던데?” 하셔서 박장대소한 일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께서는 그 후 얼마 안되어 핸디18 정도로 또박

또박 잘 치셨고 물을 꼭 지키셨어요. 박 대통령께서 즐거 같이 라운딩 하신 분들은 김진만金振晩, 김성곤金成坤, 이원만李源萬, 이동녕李東寧, 엄민영嚴敏永, 백남익白南億, 김동조金東祚같은 분들이었는데 나와 박종규朴鍾圭 경호실장이 가끔 모셨습니다.

문:잊혀지지 않는 라운딩이 있으시다면?

답:2000년 10월6일에 이태섭李台燮(전 과기처 장관, 핸디 6), 이상회李相回(전 용평C.C.사장, 핸디 10), 김정원金正源(전 재미 유학생 회장, 핸디 10)과 같이 서서울컨트리클럽에서 라운딩을 했습니다만, 턱없이 잘 쳐서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어요. 놀란 파트너 세 사람이 스코어를 넣고 자기들 성명을 새긴 은銀으로 큼직한 기념 조각을 만들어 주어서 내 평생 간직할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80대 후반 치기가 어려워졌으니 이제 높은 탓일까요.

문:예전에 비해 골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오랜 골프인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답:골프는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지난날에는 골프 한다면 증오에 가까운 험險한 시선으로 비판하는 세력이 무척 많았습니다. 망국亡國 골프라며 배척하려는 탓에 골프한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고 경제를 역행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골프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골프는 하나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 수출을 부추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효자 종목이 되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뉴코리아C.C.의 어떤 점이 명문에 속할까요?

답: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명한 설계자가 설계했다고 명문 코스가 되지 않습니다. 뉴코리아C.C.는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서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코스로, 그러면서도 머리를 써야 스코어가 좋아지고 즐

길 수 있는 그야말로 명문 코스입니다. 국내 어느 코스보다도 다양한 수목이 우거지고 연중사시年中四時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해부며 정면의 북한산 연봉連峰들이 대자연 속에 자신이 살아 숨 쉬며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보람을 안겨주는 더 없이 좋은 코스이니 명문 코스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문:골프의 대중 인식도가 오늘과 같이 좋아지기까지 총리께서는 숨은 공로가 많으신 듯 합니다만.

답:나보다도 대중 인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공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박세리 프로를 비롯한 여성 프로들입니다. 박세리 프로가 10년 전인 1998년 미국 LPGA에서 연못가의 난처한 위치에 떨어진 공을 양말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서 환상적인 샷으로 우승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인식이 *코페르닉스 적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박세리 프로가 수훈 갑니다.

(*코페르닉스적 : 천동설天動說을 지동설地動說로 신우주관을 제창한 천문학자 Nicolaus Copernicus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생각을 180도 바꿈을 뜻함.)

그 후, 박세리 프로가 귀국했을 때 축하를 하면서 박 프로가 코리아를 새삼 세계에 알린 공로도 크지만 또 하나 큰 공이 있다고 했지요. 가우똥하는 박 프로에게 그 물 속에서 샷을 하기 위해 양말을 벗었을 때 하얀 다리와 발을 세계인들에게 보였는데, 한국 여성들의 속살이 얼마나 하얗고 예쁜지를 그들이 다 보고 놀랐을 것 아니요, 했더니 박 프로가 좋아라 웃으며 기뻐하더군요, 농반진반弄半眞半이었지만 정말 박 프로의 공이 컸습니다.

그 후 김미현 등 많은 남자들이 국위 선양을 했고 또 계속하고 있으며 최경주崔京周 프로같은 남성들도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평생 골프를 즐겨온 사람으로서 초기 골프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함

니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오늘날 스코아 카드에 타수를 기입하는데, 파하면 0, 보기는 -1로 간편하게 기록하게 한 것은 내가 제안하여 보급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외국과 같이 타수를 그대로 적어 기록했음)



1971년 7월 미국의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오른쪽)과 태릉 육사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박정희대통령.

문:골프는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좋은 운동입니다. 누구나 여건만 된다면 모두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골프는 자신의 내면內面과 마주하는 운동입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운동이라기보다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러기에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는 골프 룰을 엄정하게 지키며 동반자 혹은 필드에 같이 잇는 골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원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면서 건강을 다지는 좋은 운동입니다.

문:함께 골프를 즐긴 잊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답: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요. 그 분은 특히 뉴코리아C.C.를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코스 중에서도 14홀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늘 집 테라스에 앉아서서 그 아

래에서 치며 올라오는 골퍼들을 보시면서 ‘막사이다’를 즐기셨어요. 고양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각테일한 것인데 맛이 좋았습니다. 때로는 멀리 포천막걸리를 구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좋은 양주를 마실 형편이 안 되던 시절이기도 했지만요.

나는 파트너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하자면 환영했어요. 나로서는 잊지 못할 특징있는 분들이 있는데 꼬장꼬장 치면서 홀인원을 네 번 하였던 이병철李秉喆 삼성 회장, 그린 부근의 벙커에서 퍼터로 쳐올려서 핀에 붙이는 김봉재金奉才 중소기업 중앙회장, 시종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라운드하는 서석조徐錫助 순천향병원장, 따따 호칭의 큰 내기를 즐기던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 등입니다만 이 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그런 특징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골프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국내 골프산업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만들어져서 매년 막대한 외화外貨를 해외에 뿌리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산재하는 쓸모없는

잡관목림雜觀木林의 야산들을 시市나 군郡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퍼블릭 코스를 만든다면 자연 경관도 좋아질 테고 누구나 손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따뜻한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있는 골프장은 겨울에도 플레이가 가능하니 한려수도 북안北岸 일대에 건설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골퍼들이 참가하는 시니어골프협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춘추로 시합을 해서 삶을 확인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앞으로 골프인으로서 바람이 있으시다면?

답:나도 뉴코리아C.C.를 무척 좋아합니다. 더 이상 바람이 없는 정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명예회원 1호의 소유자로서 자부심도 큼니다.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뉴코리아C.C.에서 맘껏 골프를 즐길 것입니다. 뉴코리아C.C.같은 골프장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지요. 睦友



‘서울 近郊’ <1969.11월 뉴코리아C.C.에서>
국민투표로 개헌 문제가 마무리되고, 한유開遊를 틈타 붐을 들었다. 화폭 왼쪽으로 산등성 너머 벽제 화장장에서는 이날도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로 피어 오르고 있었다. “인생일편부운人生一片浮雲”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미움도 사랑도, 영화도 부귀도, 결국 영겁永劫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에 매달려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수 없이 반추反芻한다.